

농약의 지적재산권(IPR)



**화합물질 · 제조방법의 특허권,
제품 · 포장 상표권 · 광고 · 포장재료 · 매뉴얼 등
어떤 나라도 위조품 사용 예외 안 돼, EU 전체시장의 5-7% 위조품**

Jennie Ness _ 방콕 미 대사

특허란 정부에서 인정한 재산권이며 개발자가 그의 개발품을 다른 사람이 제조, 사용, 판매, 수입, 제공 하지 못하도록 허가해주는 것이다. 개발자가 특허권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허신청 시 반드시 발명품에 대한 모든 것을 제공해야 하며 특허권은 기계, 장비, 악기, 방법, 시스템, 처리과정, 화합물, 제제와 심지어는 일부 특정조건 하에서는 동식물도 취득할 수 있다.

상표권이란 단어, 구절, 상징이나 디자인 혹은 이들이 합쳐진 형태로서 시장에서 다른 상품과 구별되며, 심지어 포장이나, 상품형태도 상표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창작자의 법적인 보호이며 문학, 음악, 드라마, 판토마임, 안무, 건축, 미술, 그래픽, 조각, 영화, 시청각,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보호한다. 저작권 보호는 오직 존재하는 것만 적용이 되며 생각 자체만으로는 보호받을 수 없다. 또한 창작물에 대해 독

점적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복제, 변경, 유통, 수행, 전시 등의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기업비밀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간단히 말하면, 상업적 가치를 가진 비밀이다. 국제 협정 하에서 기업기밀은 비밀이므로 상업적 가치 있으며 소비자와 공급자 리스트, 회계자료, 제품 제조법, 제조과정, 마케팅전략, 컴퓨터 프로그램 소스, 연구와 개발 같은 기밀유지를 위해 설계된 합리적 절차가 있어야 한다.

농약의 지적재산권이란 화합물질이나 제조방법의 특허권을 말하며 회사, 제품, 포장의 상표권 또는 광고, 포장재료, 매뉴얼, 카탈로그, 웹사이트 등의 저작권, 판매, 회계정보, 제조방식 등 기업기밀, 비공개 시험과 규제당국에 제공된 자료를 의미한다.

농약을 위한 데이터 보호

비공개 정보란 기업기밀과는 다르므로 제약

이나 농약의 마케팅을 승인하는 정부관계자는 승인과정에서 제출한 비공개 정보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정보는 정부관계자에게만 제공되기 때문이다.

WTO 협정에 의하면 특정 법률 시스템에 표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는 “비공개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39(2)조항은 기업기밀에 관한 것이며 39(3)조항은 기술적인“비공개정보”는 아니지만 특별한 조건하에서 규제당국에 공개된 정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조항은 농림수산물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같은 정부당국과 관련된 조항이다.

TRIPs 39(3) 조항에 대해 좀 더 상세히 알아보면 규제당국은 새로운 화학물질을 활용해 생산된 제약 및 농약의 마케팅 승인을 위한 조건으로 비공개 시험결과나 기타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그 자료가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 부터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데이터가 불공정하게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보호할 확실한 방법이 없다면, 데이터가 공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

TRIPs는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데 필요한 연구와 시험을

수행하도록 동기부여를 하여야 하고 자료가 규제당국에게 필연적으로 공개되고, 제출된 자료는 불공정한 상업적인 이용이 되지 말아야 한다. 또 연구자가 시간, 자원 및 노력을 투자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자료 가치를 보장해주는 유효기간이 필요하고, 몇몇 비용에 있어서는 보상도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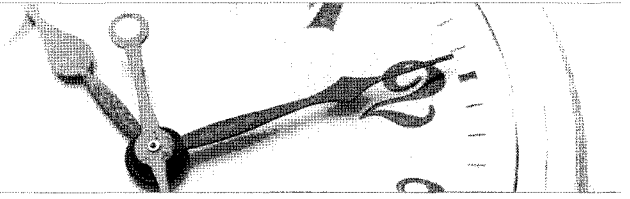
보호 기간에는 제3자가 연구자의 자료 사용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연구자의 동의 없이 누구도 마케팅승인을 위해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부가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와 함께 제3자가 기존(특허)등록자를 뒤따르기 위해서는 직접 연구하거나, 연구자 자료의 독점권이 만료되기까지 기다려야 한다. 보호 기간은 미국과 유럽, 일본이 각각 10년, 호주·뉴질랜드는 5년+5년이다.

연구·개발 및 등록 자료

기초과학 주로 국립대학이나 정부기관에서 이루어지며 수천가지의 새로운 화학물질을 분리하고 수천가지 분자물질을 추가연구하며 농약 회사의 분자물질 선정, 10년이란 오랜 기간 동안의 연구개발, 신규 화학물질을 기반으로 한 제품이 시장에 나오기까지 200백만 달러의 비용이 투자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규제당국(EPA)으로 부터 새로운 화학물질의 안전성 및 효능을 검증하는 등록 자료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즉, 인간, 동





물 및 환경에 안전성을 입증하는 120-150개 연구자료, 각 나라별 지역 환경에서의 작물에 대한 효능 자료, 작물에 처리된 식품이 소비자에 안전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연구자료 등이다.

자료보호란 판매 승인을 목적으로 제출한 안전성 및 효능을 증명하는 연구자료에 대한 노력과 투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효과적인 데이터 보호 법규는 최초 등록자가 보호기간 동안 자료에 대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독점권을 통한 시장 점유를 자료 투자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규는 공정한 경쟁과 시장진입 사이의 균형을 만들어야 한다.

요구 자료를 보면, 세계적으로 요구되어 지는 농약 자료 즉, △제형별 농약 제품의 유효성분 및 부자재 △물리 화학적 특성 △기능, 작용대사 △제조, 품질관리 및 분석 방법 △표시내용(라벨) △잔류성적 △약효성적 △인축독성 성적 △환경독성 성적 △화학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적 등이다.

자료 보호는 최초등록자의 개발과 연구 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주며 승인 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건강과 환경을 위한 제네릭 제품의 안전성을 입증한다. 규제당국은 최초 등록자가 제출한 등록 자료가 보호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독점적 사용 보장하고 자료 보호와 철저한 등록 승인과정을 통해 우수품질의 화학물질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결과적으로는 농업인과 소비자 및 환경을 보호한다. 또

한 자료 보호는 특허의 연장선이자 경쟁을 차단하고, 불법 농약의 시장진입 차단하는 것이다.

부정·불량농약

위조 및 유사·모방, 모조농약으로 이루어진 부정 불량농약 유형을 보면 △같은 포장 다른 성분 △농업인으로부터 적법한 포장 수집 △위조가 용이한 포장 △유사 포장 △유사 기업명 △유사 색상 △분 포장 농약 등을 들 수 있다.

위조품의 실태를 보자. 어떤 나라도 위조품 사용에 예외가 될 수 없다. 지난 2008년 8월 현재 유럽작물보호협회(ECPA)에 따르면 EU 전체 시장의 5-7%가 위조품이며, 25%가 특정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중국이 30%, 인도가 20%의 위조품으로 나타났다. OECD에서는 지난 2007년에「위조품과 불법복제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했는데 모든 보고서에서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었다. 즉, 위조품은 △농작물의 피해 △농산물 구입자의 구입 회피에 의한 농업인 불신 및 생계 위협 △환경 파괴 △소비자 건강 위협 △저급농약으로 보급으로 인한 고품질 농약의 신뢰성 하락 등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규제당국자는 △시장의 모니터링 △사용된 농약의 시장 감시 △농업인 교육 △유사 농약 등록 감시(명칭, 색, 포장재, 표시사항 등) △모든 생물학적 자료 요구 △제네릭 등록자가 기 등록 제품에 대한 새로운 권리를 만들지 못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㉞